

# 혼인의 정치학적 측면에서 본 티베트의 귀족(貴族)사회와 혼인문화\*

심혁주\*\*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티베트 귀족의 혼인문화 |
| II. 혼인의 정치학    | V. 결론            |
| III. 티베트의 귀족사회 |                  |

| 논문요약 |

근대까지 티베트사회에서 '정교합일(政教合一)'을 유지했던 동력과 실체는 다음의 3가지 방면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첫 번째, 정교합일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와 그의 측근인 고위 승려집단들이다. 두 번째는 티베트의 정치와 종교문화를 기획하고 구성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불교사원이다. 세 번째는 티베트 귀족가문의 세력집단이다. 그런데 구(舊)티베트사회(1951년대 이전)는 3대 영주, 즉 관가(官家)와 귀족 그리고 불교사원의 고위 승려집단들이 지배계층을 형성하였고 티베트사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들의 인구는 전체의 5%밖에 안 되었다. 이 중에서 귀족계층은 티베트의 문화와 정치를 창조하고 경제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파워집단이었다. 역사적으로 티베트의 귀족집단은 네 부류의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첫 번째가 '아계'(亞谿)가문이다. 이들은 달라이 라마의 부모와 판첸 라마의 가족으로 구성된 '황금(黃金)귀족'을 말한다. 두 번째는 '제본'(第本)가문이다. 이 가문의 특징은 전통적이며 권위적인 혈통의 세습인데 티베트 귀족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

\* 이 논문은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53-B00082).

\*\*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이다. 세 번째는 ‘미찰(米扎)’가문이다. 이 가문의 특징은 당시 티베트 지방 정부(噶廈)의 대신(噶倫)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며 가문의 안정성과 신분의 유지를 위해 비슷한 가문끼리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이러한 혼인문화는 아계가정을 제외한 다른 귀족계층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혼인의 정치적 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촉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귀족(貴族)들인데 이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하여 경제적 부(富)를 축적하여 귀족세계에 진입한 소규모의 가문들이다. 본문에서는 이들 귀족가문의 혼인 형태와 가치관 그리고 혼인의 목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티베트에서 일반 농민과 농노의 혼인문화와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당시 귀족가문의 혼인이 매우 정치적이었음을 밝히고자 함이며 추가적으로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가늠하고자 한다.

▪ 주제어: 티베트, 귀족, 혼인, 정교합일, 황금귀족

## I. 서론

국내에서 티베트의 혼인문화에 관한 연구 성과로는 홍병혜의 “티벳 전통의 혼인유형 분석과 균혼문화의 형성배경”이라는 학술논문<sup>1)</sup>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병혜의 논문이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1959년 이전까지의 티베트의 혼인형태와 내용 및 특징을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그 주요 내용이 티베트 농노계층의 주요 혼인형태만을 취급하고 있다는 한계를 살필 수 있으며, 이에 본고에서는 그 대상을 농노계층이 아닌 귀족계층으로 관점을 이동하였다. 즉 티베트 농노계층을 장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배계급인 귀족(貴族)계층의 혼인문화는 어떠하

1) 본 논문의 핵심내용은 혼인은 가정의 구성을 전제로 하며, 역사적으로 한 가정의 형태는 이에 상응하는 혼인의 유형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혼인문화는 인류의 주요한 문화현상이다. 인류의 초기는 모계사회이며, 모계사회의 특징을 혼인의 형식으로 국한하자면 일처다부 등의 균혼문화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혼인형태가 티베트에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연구 동기의 전제 아래 티베트의 정체성과 저력을 혼인문화, 특히 계층에 따른 혼인유형 분석과 균혼문화의 형성배경의 전통을 통하여 고찰하고 있다(홍병혜 2004, 215-241).

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은 학술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작업이다.<sup>2)</sup> 근대 티베트 귀족가문의 혼인은 ‘등급내훈제’(等級內訓制)가 유행이었다. ‘등급내훈제’란 비슷한 혹은 우열의 차이가 거의 없는 귀족가문끼리 혼인 당사자의 의지와 감정에 상관없이 혼인을 추진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시 티베트 귀족가문의 혼인은 보편적인 풍속과 혼인문화의 측면보다는 더 중요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형성된 또 하나의 귀족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시 귀족가문의 혼인은 티베트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을 공고히 하고 가문의 재산 분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시 말해서 귀족의 혼인은 비슷한 혹은 상위 등급 계층 간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의 현실적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귀족의 혼인은 가문의 또는 가문에 속해있는 남녀관계의 사회지위를 확인하는 방식이자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는 티베트에서 적은 숫자이지만 전통적으로 기득권을 형성하고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귀족가문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련된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했지만 좀 더 근원적인 이유는 가문의 혼인을 통하여 티베트 사회에서 좀 더 넓고 긴밀한 정교(政敎)의 연결망의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근대 티베트 귀족의 혼인문화를 보다 세밀하게 추적하고 당시 그래야만 했던 사회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티베트 귀족의 혼인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근대 티베트 귀족가문의 전략적인 혼인의 배경과 필요성 및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귀족혼인문화의 특징은 무엇인지, 혼인의 절차와 과정은 어떠한지? ‘형제공처’(兄弟共妻)를 해야만 했던 가문의 상황과 결과는 어떠한 영향을 과급했는지?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티베트 농노의 혼인과는 어떤 이동(異同)을 갖는지 그 차이점을 부각시킬 것이며 추가적으로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한 당시의 현실과 사회적 배경을 가늠할 것이다.

2)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티베트 지방정부’ 혹은 ‘봉건농노제’ ‘농노’와 같은 용어는 현재 중국 정부나 학계의 공식적 입장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필자 개인의 견해가 반영된 동의하는 용어는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 II. 혼인의 정치학

근대 티베트 귀족계층은 가문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번영시키고 확장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가문끼리의 전략적인 혼인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예를 들어, 티베트 최고의 귀족가문인 파라(帕拉)가문의 가문의 위기가 닦쳤을 때 쑤어강(索康), 샤거바(夏格巴), 짜강(扎康)등의 명문가문들과 혼인을 진행하여 그 위기를 벗어났으며 5대 달라이 라마(阿旺羅桑嘉措)를 배출한 총지에(窮結)가문은 티베트 산남(山南)지방의 지쉐(吉雪, skyid shod), 라짜리(拉嘉理, lha rgya ri), 야자오(雅郊, yargyab)등지의 영주들과 혼인을 맺어 그 사회적 경제적 신분의 확장을 도모하였다(陳慶英 2007, 85). 이 가문들은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통하여 귀족세계에서 새로운 인맥과 인적교류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티베트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번영할 수 있었다.

### 1. 사례와 특징

본문에서는 티베트의 여러 귀족가문 중에서 구체적으로 파라(帕拉)귀족가문을 예를 들어 혼인의 사례와 그 배경을 알아본다. 파라(帕拉)귀족가문은 본래 ‘파췌라강’(帕覺拉康)가정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되었고 티베트 귀족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파라’가문으로 불리 운다. 이 가문의 근원지는 티베트 후장(后藏)의 장쯔(江孜)지역이다. ‘파라’가문은 티베트의 귀족사에서 6대 ‘디본’(第本, sde-dpon)귀족가문 중의 대표적 가문중의 하나이다. 이 가문의 처음 설립자는 부탄인으로 전해진다. 시기적으로 17세기 40년대 최고로 흥성했던 가문으로 장쯔(江孜)일대에 방대한 싸루(薩魯)장원을 형성했으며 티베트 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세속귀족 이었다. 이 가문은 1792년 네팔(廓爾喀)과의 전쟁에서 수훈을 세운 파라·단정랑지에(帕拉·丹增朗杰)가 청(淸)조 로부터 ‘게룬’(噶倫)이라는 티베트 지방정부의 최고위직을 하사 받으면서부터 본 가문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畢達克 2008, 66). 고대 티베트 사회의 계층구조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13법전>과 <16법전>에 제시된 티베트 사회의 9품제<sup>3)</sup>

의 특색을 감안할 때, 귀족가문의 구성원이 관료로 진출한다는 것은 본 가문의 경제적 자산인 장원을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 일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에도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었다. 丹增朗杰의 시작에서 후대 150년간 파라가문의 후손들이 축적한 정치적 지위는 자연스럽게 장원의 확장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1959년 중국정부에 의한 '민족평등'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 파라가문이 티베트에서 소유한 장원의 지리적 범위는 르커저(日喀則), 바이랑(白朗), 쟡즈(江孜), 캉마(康瑪), 취수이(曲水), 라싸(拉薩), 징지에(環結)등지에 이르렀다. 이는 파라가문이 방대한 토지와 초목 그리고 농노를 소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신분과 막대한 재정을 유지했던 파라가문은 1930년대에 들어와 가문의 위기를 맞이한다. 그러한 이유는 6명의 자녀를 둔 가문의 가장인 파라·핑취랑지에(帕拉·彭措南杰)와 그의 부인이 연이어 병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彭措南杰의 큰 아들 파라·투덩야오단(帕拉·土登沃丹)은 가문의 지위와 신분을 지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동생들의 혼인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파라 가문에서 투덩야오단은 매우 특수한 인물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 가문에서 유일하게 출가한 라마승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문의 위기를 구하기 위하여 개인적 신분을 벗어던지고 환속했다. 그러한 이유는 그 자신도 출가하기 전까지 귀족가문의 흥망성쇠의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부모의 부재 속에서 자녀의 혼인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일찍부터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투덩야오단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첫 번째 여동생은 당대의 귀족집안인 '런왕지아'(仁崗家)와 혼인을 맺었고, 두 번째 여동생은 후장(后藏)지역 판첸라마(班禪喇嘛)은둔지의 거대 귀족 '칭강지아'(傾康家)의 부인이 되었다. 세 번째 동생 또한 귀족가문인 '지푸지아'(吉普家)와 혼인을 맺었다(次仁宗央 2006, 61).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투덩야오단은 기존의 혼인방식, 즉 상대집안은 반드시

3) 구(舊)티베트 사회에서는 사회신분의 등급이 '3級 9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티베트의 법전인 <13法典>에 따르면 티베트 사회는 상·중·하의 3급(級)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 급은 또다시 상·중·하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따라서 근대이전 티베트 사회는 총 9개의 신분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중 1등급이 귀족이고 9등급이 농노였다(陳慶英 2002, 158-159).

시 우월한 가문을 선택해 혼인을 맺었던 선대와는 달리 조금 등급이 낮은 귀족가문과도 혼인을 맺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때 출가했던 개인의 약력과도 무관하지 않은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그는 비교적 자신의 가문보다는 낮은 등급에 있는 가문일지라도 혼인관계를 맺어 사회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도와 결과는 파라가문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인적네트워크와 정치적 세력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투덩야단은 남동생들도 또한 당대의 귀족가문인 ‘꽁상즈’(貢桑孜)가문과의 혼인을 추진하고 성공하였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남동생은 티베트 귀족사회에서 처음으로 형제공처(兄弟共妻)인 일처다부제의 형식으로 혼인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혼인형식을 티베트에서는 ‘시송마’(洒松瑪)라고 호칭한다(次仁宗央 2006, 281). 사실상 이러한 혼인형식은 티베트 농노사회와 유목민 사회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티베트 귀족사회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에 속한다. 그렇다면 투덩야단은 왜 두 명의 동생을 상대 귀족가문의 형제공처의 형식으로 혼인을 추진했을까? 티베트에서 일처다부제의 혼인형식은 근본적으로 재산과 토지의 영속성을 확보하려는 현실적 상황에서 출현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은 농노나 유목민 그리고 귀족세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 척박한 티베트의 생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기반인 장원(莊園)과 그에 속한 토지 그리고 농노(農奴)의 보유 및 세습이다. 티베트에서 이혼이나 별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도 감정이나 사랑으로 혼인관계가 이루어진 비율보다 경제적, 정치적 현실적 이유로 결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티베트에서 이혼은 경제적 자산의 이동과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티베트 귀족가문의 혼인문화는 가문의 재산보호와 확장 그리고 정치적 실체들과의 의도적인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문의 자녀들은 가문의 수장이 결정하는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 2. 귀족사회의 혼인 과정과 형식

일반적으로 티베트 귀족사회의 혼인과정과 형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택혼

티베트귀족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는 16세 여자는 14-15세 정도가 되면 부모는 혼인을 위해 상대 가문을 찾기 시작한다. 보통은 여자가 정 쪽에서 먼저 사회적, 경제적 신분이 비슷한 혹은 더 우월한 남자 쪽 귀족가문을 물색하고 이 이일을 추진할 가문의 대표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비단(緞綢)、칼(藏銀)、음식(食物)、하다(哈達)등의 예물을 마련하여 물색한 가문을 방문한다. 그리고 양가 자녀의 궁합과 사주를 맞추어 본다. 여기에는 우선 남자 쪽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만일 남자 쪽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미 사전에 혼인관계가 다른 가문과 이미 이루어졌다고 알리는 거절의 방법이다. 여자집안의 대표자는 남자 가문의 궁합과 사주를 위한 정보를 구하면 바로 저명한 라마승을 초빙하여 점을 보고 운세를 본다.

### (2) 구혼(求婚)과 정혼(定婚)

라마승을 통하여 길일을 잡으면 여자 가문 내에서 신분(品位)이 가장 높은 어른이 풍성한 예물을 준비하여 남자 가문을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정식으로 청혼을 청한다. 예물을 전하고 담화가 이루어지면 양가는 다시 라마승을 청하여 점을 치고 혼인의 길일을 잡는다. 혼인을 하고 연회를 벌이는 장소는 신혼 방이 있는 장소에서 같이 진행한다. 혼인이 벌어지기 전 여자 쪽은 남자 쪽에 고급스런 하다(哈達)를 선물해야 하며 혼인이 진행될 때, 남녀는 같이 마주보고 인사를 한다. 이것을 티베트에서는 ‘룽하’(龍哈)이라 칭한다. 그리고 남자 쪽은 여자의 모친에게 일정한 수량의 ‘누런’(努仁)<sup>4)</sup>을 바쳐야 한다. 이는 여자 쪽의 모친이 생존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혼인 할 때, 쌍방은 반드시 한 명의 보증인(證婚人)을 모셔야 한다. 이는 결혼계약의 파기를 방지하기 위

4) ‘哺乳錢’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혼인 사례금이다.

함이다. 혼인 후의 연회는 술과 안주를 준비하고 전문적으로 춤과 장극(藏劇)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청하여 혼인을 축하하며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 진행하기도 하지만 신분이 높은 귀족 가문일수록 2~3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 Ⅲ. 티베트의 귀족사회

티베트 최초의 귀족은 대략 기원전 4세기에 법왕(法王) 네치贊뽀(聶赤贊普) 시대에 출현 했다. 7세기 송첸감뽀(松贊干布)시대에는 이미 ‘상륜’(尙倫), ‘공륜’(公倫), ‘치륜’(齊倫) 등의 다양한 특권을 향유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이 실질적인 고대의 티베트 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티베트 귀족계층은 17-18세기에 형성되었다(劉忠 1990, 84-85). 당시 게루파(黃教)가 중앙정부를 육성하면서 안정적인 ‘정교합일’(政教合一)의 정권체제인 간단포장(甘丹頗章)이라는 지방정권을 건립하였고, 이는 관작의 수여를 통해 티베트 지방정부로 하여금 분봉을 받는 귀족이 300여년의 역사 속에 일종의 집단을 형성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의 발전과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티베트의 귀족계층 역시 흥망성쇠의 변화를 거듭하였고, 1959년 중국 정부의 티베트 장악 당시에는 이전에 분봉의 혜택을 받았던 400여개 가정의 귀족들 중 197개만이 남았다(中根千枝 1996, 62-63). 티베트의 귀족계층은 서구의 귀족계층과는 구별되는데,<sup>5)</sup> 귀족의 고저구분은 영지(領地)의 대소와 관작(官爵)을 통해

5) 서구의 귀족계층은 혈통을 중시하는 반면, 티베트의 귀족가정은 혈통이 아닌 토지와 장원의 확보와 세습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 관하여는 미국의 M. C. Goldstein(1971)은 참고할 만한 수준이다. 그의 연구에서는 고대 티베트 귀족의 경제수준과 세습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골드스타인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莊園’(pha-gzhis)을 기초로 하는 티베트의 귀족가정은 유럽의 그것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이다. 서구의 귀족계층은 혈통을 중시하는 반면, 티베트의 귀족가정은 혈통이 아닌 토지장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티베트 귀족은 서구사회에는 없는 데릴사위제도, 즉 ‘瑪巴’제도를 습속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부와 권력을 상속하게 위해서이다. 만약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긴 집안은 사위를 집안으로 들인다. 그리고 부인의 성(姓)을 따르게 한다. 이러한 ‘瑪巴’제도는 가정을 세습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주장이다. 그

획득한 권력의 정도로 구분되어 진다(張江華 1989, 166). 이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하여 티베트의 귀족계층 ①아계(亞谿) ②제본(第本) 그리고 ③미찰(米扎)과 같이 대·중·소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次仁央宗 2006, 41-43). 이러한 귀족계층의 형성은 봉건化과정 속에서 계층에 따른 토지 분봉으로 인한 재산의 차이를 형성하였다. 이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티베트 귀족계층의 특징

분류	①아계(亞谿)	②제본(第本)	③미찰(米扎)
특징	달라이 라마의 친인척 가정을 말한다. 따라서 ‘아계가정’은 대량의 토지와 장원(莊園)을 부여받고 최고의 신분을 보장받는 귀족계층으로 분류된다.	혈통과 세습을 원칙으로 한다. ‘혈친(血親)’전승이 특징	자수성가형 귀족 데릴사위제, 양자
대표적 가문	①桑珠頗章 (bSam-grub-pho-brang) ②宇妥(g. Yu-thog) ③彭康(Phun-Khang) ④(前期) 拉魯(Lha-Klu) ⑤(後期)拉魯(Lha-Klu) ⑥朗頓(Glang-mdun)	①噶錫 (dGav-bz) ②通(Thon) ③朵客 (mDo-mkhar) ④帕拉(pha-lha) ⑤拉嘉日 (Lha-rgya-ri)	①森厦欽噶 ②夏扎 ③擦誠 ④索康 ⑤赤門
신분과 지위	최상	상	중
정치적 영향력	중	상	상
경제적 영향력	상	상	중

는 자신의 또 다른 연구 성과인 M. C. Goldstein(1971)에서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종교적 영향력	상	상	중
------------	---	---	---

이 중 ‘아계’(亞谿)귀족가문은 달라이 라마 부모의 가정을 말한다. 티베트어로 ‘亞’는 부친의 최고 경어이며 ‘계(谿)’는 농전(農田), 즉 장원(莊園)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계란 권세와 재복의 명사를 존중하는 의미로 부친의 장원을 뜻한다. 티베트인들은 달라이 라마와 그 가정을 매우 존중한다. 불교의 윤회 관에 입각한 그들의 사유방식은 달라이 라마 가정자체를 신격화한 ‘아계’라는 고유명사로 한정시키기에 아무런 저항감이 없다. ‘아계가정’은 대량의 토지를 소유하며 최고의 권위와 신분을 보장받는 귀족 계층이다. 학계에서는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계층은 근대까지 6개의 아계귀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6)</sup> 예컨대 ①제7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인 ‘桑珠頗章’(bSam-grub-pho-brang)귀족,<sup>7)</sup> ②제10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인 ‘宇妥’(g. Yu-thog)가문,<sup>8)</sup> ③제11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인 ‘彭康’(Phun-Khang)가문,<sup>9)</sup> ④제8대 달라이 라마 전기(前期) ‘拉魯’(Lha-Klu)귀족<sup>10)</sup>과 제12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인 후기(後期) ‘拉魯’귀

- 6) 원래는 7개의 귀족집단이어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9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은 멸망했기 때문에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 7) 7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이다. 일반적으로는 ‘桑頗’이라 칭한다. 이 귀족 가문은 ‘索諾木達爾扎’가 설립자이다. 索諾木達爾扎는 18세기 전반기 티베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귀족 인사 중의 하나이다. 그는 티베트 江孜에서 출생했다. 그는 어렸을 적 황교사원인 ‘哲幫寺’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티베트의 동장(東藏)으로 가서 환속하고 결혼하였다. 그의 첫 번째 아들이 6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으로 인정되어 이 집안은 일약 아계귀족으로 신분이 상승되었다(章嘉·若貝多杰 2006, 248-251).
- 8) 10대 달라이 라마(楚臣嘉措 1816-1837)의 가족이다. 달라이 라마의 아버지 羅布桑年扎가 가문의 기반을 닦았으며 결국 황금가문인 ‘宇妥’귀족 가문을 탄생시켰다(陳慶英 2006, 198-199).
- 9) 11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이다. 정식명칭은 ‘彭措康賽’(Phun-tshogs-Khang-gsar)이다. 이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장원은 雅隆(Yar-klungs)계곡 입구의 昌珠(Khra-vbrug)라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眞孜才旺頗珠(dKon-rtse-tshe-dbang don-grub)이 집안의 설립자이며 1841년 10월 10일 청 황제로부터 ‘輔國公’이라 관직을 하사받았다. 또한 1845년 티베트 정부는 眞孜才旺頗珠에게 아계의 장원을 하사했다.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번째 아들이 11달라이 라마의 영동으로 접지되었다(陳慶英 2006, 201-202).

족<sup>11)</sup>, ⑤제13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인 '朗頓'(Glang-mdun)가문<sup>12)</sup> ⑥제14

- 10) 8대 달라이 라마 가족이다. 정식명칭은 '拉魯嘎察'(Lha-Klu-dgav-tshal)이다. 이 귀족의 명칭은 라싸부근의 지역(壯觀宅第)명칭이기도 하다. 제8대 달라이 라마는 이 가정에서 출현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이 가정에서 티베트 황교의 전세영동을 많이 배출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가족은 2개의 시기, 즉 8대의 전기와 12대의 달라이 라마의 후기 귀족 가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귀족집안은 티베트 사회에서 오랜 시간동안 막강한 부와 명예를 차지 할 수 있었다. 청 왕조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견제하고 좀 더 객관적인 활불을 선출하기 위하여 1793년 '금병채침'(金瓶掣籤)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게 된다. 이 가문의 기원은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씨(佚名)의 3명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중 장남이 索南達吉(bSod-nams-dar-rgyas)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馮 智 2006, 165-166).
- 11) 정식명칭은 '拉魯嘎擦'이다. '彭錯策旺'(Phun-tshongs-tshe-dbang)을 중심으로 형성된 12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이다. 이 가문은 이미 전기 拉魯귀족을 형성한 과거가 있는바 정부는 장원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하여 1858년 12대의 달라이 라마 가족과 8대 달라이 라마 가족의 混居를 권장하였다. 이는 황금귀족인 달라이 라마 친인척들의 富의 축적과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노력이었다. 이 귀족가문의 건립자는 彭錯策旺이다. 그는 1859년 彭錯策旺은 황제로부터 '公'의 관직을 수여 받았고 1865년에 죽었다. 彭錯策旺은 세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12대 달라이 라마는 막내였다(普布覺活佛洛桑楚臣強巴嘉措 2006, 43-46).
- 12) 이 귀족 가문은 13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13대 달라이 라마의 아버지 工噶仁靑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朗頓'(Glang-mdun)가족이라 한다. 工噶仁靑(Kun-dgav-rin-chen)은 達拉岡布 산촌의 朗頓村의 일개 농민이었다. 그러나 그의 네 번째 아들이 13대 달라이 라마의 어린영동으로 인정되자 1879년 청 황제로부터 '公'이라는 명칭과 관직을 하사받았다. 그는 1887년에 죽었으며 슬하에 5명의 아들을 두었다. 첫 번째 아들이 頓珠多吉(Don-grub-rdo-rje)다. 그의 생애는 1910년 일본인 승려 河口惠海와 적대적 관계를 맺은 것을 제외하면 순탄했다. 1904년 그의 동생인 13대 달라이 라마를 도와 라사를 떠나 1905년 몽고의 庫倫(urga)으로 피난했다. 1909년 柴達木(Tsaidam)에서 죽었다. 두 번째 아들은 羅桑扎西(Blo-bzang-bkra-shis)이다. 승관으로 시작해서 관료의 생애를 거쳤다. 훗날 관료가 되어서 사원을 떠났다. 세 번째 아들은 強巴南杰班丹이다. 1901년 1월 그는 사원의 주지(堪布 mkhan-po)로 임명되었다. 1909년 첫 번째 형이 죽자 13대 달라이 라마는 몽고에서 라사로 귀환했는데 이때 強巴南杰班丹가 보필한다. 1912년에 죽었다. 네 번째 아들이 바로 13대 달라이 라마이다. 다섯 번째 아들은 江班旺秋(vJam-dpal-dbang-phyug)이다. 라사의 황교사원 色拉寺(Se-ra) 扎倉에서 수행했다. 1906년에 죽었다. 頓珠多吉의 아들 貢嘎旺秋(Kun-dgav-dbang-phyug)는 근대사에서 많은 공적을 이루었던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1906년에 전형적인 아계가정에서 출생했다. 즉 13대 달라이 라마는 貢嘎旺秋에게 숙부에 해당된다. 貢嘎旺秋는 티베트의 근대사에 많은 족적을 남긴 황금가족의 일원이었다. 1951년 한족과 티베트 민족 간에 협정된(漢藏協定) 티베트의 화평해방 방법의 협의서(關於西藏地方和平解放協議)가 쌍방 간에 조인된 후 貢嘎旺秋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1956년 그는 티베트자치구 준비 위원회 중심위원에 임명된다. 1959년에는 티베트 지방정부와 중국인민 정치협상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된다. 또한 티

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 등을 말한다. 이 아계귀족 집단의 특징은 '제본'귀족처럼 대대로 세습되어온 집안이 아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아이가 전대 달라이 라마의 전세영동(靈童)으로 지정<sup>13)</sup>되면서부터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 수평에서 수직선상으로 격상된 가정이다.<sup>14)</sup> 지정된 자신의 아들이 사원에서 정식 활불로 인준 받아 티베트의 수장으로 배양되기 위하여 종교적 수습기간에 들어서면 부모들은 티베트 정부로부터 고관의 작위나 대장원의 경제적 기반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 전통이 처음부터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보면 6대의 달라이 라마 재위 기간까지 이러한 전례는 없었다.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제7대 달라이 라마 재위기간중인 1729년에 청 왕조의 전격적인 실행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청은 7대 달라이 라마의 부친을 '보국공(輔國公)'이라는 관직을 하사하였다. 이 관직명은 이후 전세영동으로 승인받은 부친에게 관례적으로 하사되었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다. 예를 들면 9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은 어떤 관직도 하사받지 못했으며 10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은 '일등대길(一等台吉)'이라는 비교적 낮은 등급의 관직명을 얻기도 했다. 따라서 이 '아계'라는 귀족집단의 특징은 7대 달라이 라마 재위시절부터 본격적으로 티베트사회의 경제, 정치, 종교의 중심에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세습의 전통을 확립하였다(심혁주 2010, 125-130).

역사적으로 티베트에는 5개의 대표적인 '제본'가문이 존재했다. 예를 들

---

베트 자치구가 성립되는 1965년에는 자치구 인민대표(人民代表)의 수장으로 선발된다. 아울러 티베트 자치구 정부의 부주석 중의 한명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1968년 9월 성립된 티베트 자치구 혁명위원회의 준비위원회에서는 제외됐다. 1968년 이후로는 그의 행적을 알 길이 없다. 어찌됐든 貢嘎旺秋는 근대사에서 '朗頓'(Glang-mdun)귀족 가문의 마지막 인사로서 중국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普布覺活佛洛桑楚臣強巴嘉措 2006, 26-27).

- 13) 전세영동으로 확인되면 그 집안은 '아계'가정으로 분류되고 아울러 그 부모 또한 새로운 환경과 인맥관계를 접하게 된다. 이때 영동의 부모는 원래의 이름대신 새로운 호칭을 얻게 된다.父인 경우는 '加亞'라 부르고 母의 경우는 '加雍'이라 한다. 티베트어로 加는 王의 의미이고 亞는 아버지의 존칭이다. 따라서 '加亞'는 '왕부'의 뜻이 된다. '雍'은 티베트어로 모친의 존칭이다. 따라서 '加雍'는 왕모의 뜻이 된다(畢達克 2008, 1-9).
- 14) 아계 귀족가문의 출현은 기존의 티베트 귀족사회에 새로운 권력구도를 형성하게 했다. 달라이 라마라는 활불의 지위와 신성함을 등에 업은 아계가정의 등장은 '제본'이나 '미찰' 등의 기존 귀족계층을 긴장시켰으며 새로운 권력판도와 재구성을 암시했다.

어 다음과 같은 가문들이다. ①噶錫(dGav-bz)<sup>15)</sup>, ②通(Thon), ③朵客(mDo-mkhar), ④帕拉(pha-lha) ⑤拉嘉日(Lha-rgya-ri). 대표적인 ‘미찰’ 가문은 차지에(擦絨), 샤짜(厦扎), 쑤어강(索康), 휘강(霍康), 아페이(阿沛)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외에도 30개의 ‘미찰’ 귀족가정이 있다. 모든 ‘미찰’ 가문은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갈룬(噶倫)이라는 티베트 지방정부의 주요 관원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정은 일반귀족 가정과 구별하기 위하여 가정의 호칭에도 구별을 두었다.<sup>16)</sup> ‘미찰가정’은 티베트 사회의 귀족 범주에 포함되지만 위에서 서술한 ‘아계가정’과 ‘제본가정’과는 그 성격과 배경이 다르다. 즉 이 가정들은 대부분 스스로 노력하여 자수성가한 계층들이다. 이 계층들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 흡수시기인 1940-1950년 대에도 약 30여개가 있었다. 그 중 일부의 ‘미찰가정’은 기본적으로 당시 티베트의 재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샤짜(厦扎)’, ‘차지에(擦絨)’ 등과 같은 가문들이다. ‘미찰가정’은 가문의 지속과 사회 권력과의 연계를 위하여 이혼·재혼·데릴사위·양자 등의 다양한 결합 형태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가족 내의 남성계승자 유무를 매우 중요시했다. 남성계승자가 있다면 이 계승자의 직위 상승을 통해서 그 가족의 경제적, 신분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이용하여 가정의 사회적 지위 또한 제고할 수 있었다. 상술한 3가지 유형의 가문은 티베트의 농노제 사회에서 탄생한 특권계층이다. 이 중 ‘아계가정’은 가문의 전통을 유지하는 토대로써 혈통을 그다지 주요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귀족가문과의 차이점이다. 예컨대 제본이나 미찰 귀족가문은 가문의 연속성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가족 내부에서는 ‘혈친전승’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또한 가족 내에 관료 출신의 남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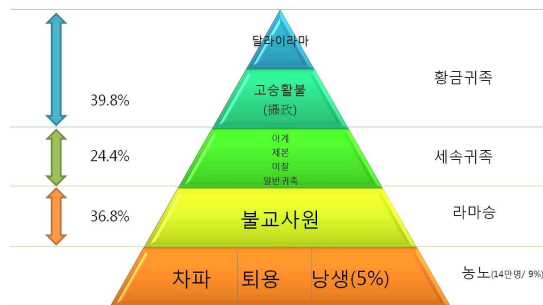
15) ‘多仁’이라고도 불린다.

16) 티베트의 귀족가정은 그 가족의 성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家僕·家奴는 물론 심지어 屬民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원은 티베트 귀족의 독특한 가족집단을 구성하였다. 가정은 귀족들의 거주 조합형식이며, 경영조직을 건립한 사회집단이다. 따라서 티베트의 귀족가정은 내부적으로 조합의 지구성을 강조하였고, 성원 사이의 유대관계를 강조하였으며, 가정의 의무와 책임을 통하여 관계를 결부하여 이를 통해 가족성원들 사이의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특히 티베트의 귀족가정은 항상 가족 간의 도덕적인 특권관계를 우선하였는데, 이러한 도덕적인 관계는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실천지침 이었다(홍병혜 2004, 215-220).

매우 중시하였기 때문에, 남성의 존재여부는 귀족가정의 발전과 쇠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였다. 따라서 가문의 가업전승이라는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 계층 사이의 구성원 유입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예를 들면, 데릴사위·양자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혼인과 가족의 재구성을 전략적으로 운용하였는데, 이는 당시 귀족가정 내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中根千枝 1996, 103). 따라서 가정의 권력과 경제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이혼과 재혼은 물론 여러 배우자를 일시에 동반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가정구성의 방식에 부합하여 ‘제본가정’에서는 ‘일처다부제(一妻多夫制)’의 혼인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는 티베트 귀족가정의 일반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농노가정에서도 역시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혼인형태이다. 이러한 혼인유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각 계층마다 다양하지만 귀족가정에서는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실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결론적으로 근대이전 티베트의 귀족계층은 장원의 보유 정도와 관료의 존재여부가 가정의 지위와 개인의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귀족계층 사이에는 일부일처 이외에도 일부다처(一夫多妻)의 형식과 일처다부(一妻多夫)의 형식과 같은 혼인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 IV. 티베트 귀족의 혼인문화

다음은 티베트사회( ~ 1951)의 계층구조이다.



상술의 도표를 정리하자면, 10세기부터 티베트에서는 봉건농노제(封建農奴制)가 시작되었고 13세기부터는 전 지역에 보편화되었다. 티베트 봉건농노제의 특징은 장원(莊園)의 소유, 즉 귀족이 토지의 장악과 농노의 소유가 그 핵심내용이다. 1951년 이전, 구(舊)티베트 사회는 관가(官家), 세속귀족(貴族), 불교사원의 고위라마승 등으로 형성된 3대 영주가 정치, 종교,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티베트 전체 인구의 5%에 밖에 안 되는 소수였지만 티베트의 방대한 토지, 목장, 산림, 산천과 주요 목축을 장악하고 있었다. 티베트의 농노는 크게 ‘차파’(差巴), ‘퇴옹’(堆窮), ‘낭생’(朗生)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티베트 전체인구의 90%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이중 노예 등급으로 다시 분류되는 낭생은 5%의 인구 비율을 보였다. 이들에게는 토지의 소유권이 없었으며 인신의 자유와 혼인의 문제 또한 자율권이 허락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의 이러한 처지와 신분은 대대로 세습되었다. 티베트는 ‘정교합일’(政教合一)의 체제로 유지되는 사회였다. 종교의 수장이 곧 정치를 기획하고 주관한다는 의미이다. 역대로 정교합일의 수장은 살아있는 부처로 대변되는 달라이 라마였다. 물론 달라이 라마를 보좌하는 섭정(攝政)활불과 황교의 고위 라마승 그리고 귀족세력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엄밀하게 보자면 티베트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력은 달라이 라마를 정점으로 하는 세 부류이다 (심혁주 2010, 78-85). 이중 귀족세력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실체이다. 티베트의 귀족집단은 가문의 번영과 지속을 위해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하였다. 첫 번째는 자신이 속한 가문에서 대외적으로 관료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근대 티베트사회의 최대 정치기구인 갈하(噶廈)(bkav-shag)에 적지 않은 대신(大臣)이 귀족가문출신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분명해진다.<sup>17)</sup>(아래의 도표 참조) 갈하(噶廈, bkav-shag)는 일반적으로 175명의

17) 티베트사회에서 噶廈는 귀족세력들의 본영지이며 달라이 라마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세속적 권력기관이기도 하다. 噶廈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가 譯倉인데 황교출신의 4명의 라마승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仔康으로 4인의 귀족으로 구성된다. 이곳의 수장은 달라이 라마이고 외부 인사로는 청조가 파견한 주장대신(駐藏大臣)이 있다. 噶廈에는 ‘갈륜’이라 호칭되는 중요한 대신들이 있는데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3인이 귀족이고 1인이 라마승이다. 噶廈는 시기적으로 1792년 청조가 추진한 티베트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티베트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장대신(駐藏大臣)을 파견하

‘승관(孜仲)’과 175명의 ‘속관(孜仲)’으로 구성된다. 이는 티베트의 귀족계층 중 상층승려와 세속관원이 평행하는 구성이다. 티베트에는 지방정부에 속하는 귀족, 뵤찬라장(班禪拉章) 소속의 귀족, 싸지아(薩迦法)법왕 소속의 귀족, 지방성을 지니는 소(小)귀족 등 다양하게 분화되지만 그들이 비록 같은 계층에 소속된 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 사이의 관계는 의존성과 종속성이 매우 뚜렷하다. 특히 지방정부 소속의 귀족들은 관부(官府)의 대변인으로 지방정부의 권위를 옹호한다. 그러나 지방정부 소속의 귀족 내부에는 대단히 엄격한 등급의 구분이 있으며, 이러한 구별은 관리사회와 교류 및 복식 등에서 확연히 표시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와 자녀교육 및 윤리관념 등에서도 그 차이가 현저하다. 따라서 과거 귀족집단의 정치권력은 갈하(噶廈)라고 하는 관료들의 의사결정기구 안에서 몇 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얼마나 오래 동안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했다. 티베트 지방정부의 구조는 엄격하게 관료주의 체계이다. 앞서 서술한바 지방정부의 관료는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가 세속귀족으로 구성된 속관(俗官)이고 두 번째가 황교의 승려들로 구성된 승관(僧官)이다. 모든 속관은 일률적으로 귀족집단으로부터 공급된다. 이러한 자격은 귀족들만 가질 수 있다. 즉 귀족의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티베트 사회의 고위 관료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고대 티베트의 귀족집단은 대략 200여개의 성씨를 가진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가정당 평균 6명의 호구로 계산할 때 전체적으로 1200명의 귀족집단은 기본적으로 티베트 최고의 통치 집단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것이었다. 이는 일반 평민으로 살아가는 티베트인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생활환경이었다. 귀족집단이 일반 평민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적지 않은 장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귀족도 토지의 소유와 농노의 보유량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장원은 영지(領地)와 분지(份地)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는 영주가 직접관리 하는 것이고 후자는 농노가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귀족은

---

기도 하였으나 의도한 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청조는 7대 달라이 라마 이후부터 噶廈에 소속된 대신들의 신분을 4단계의 품계로 나누어 녹봉을 지급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품에 해당하는 신분은 달라이 라마이고 3품은 갈룬의 대신(大臣)이다. 4품은 譯倉(비서담당)와 仔康(회계담당)이다.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적 우세와 특세를 바탕으로 ‘갈하’내에서 권위와 권력을 점유하고 있었다. 귀족은 생활방식이나 기호식품, 정치적 권리, 사회적 특혜 면에서 우세한 대접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등급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등급의 구분은 재산의 보유정도, 지위(噶廈내에서의 신분), 그리고 혈통 등과 같이 세세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근대까지 티베트의 절대적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해온 ‘갈하’내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티베트사회에서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신분과 권위를 표시한다. 아래의 도표는 티베트 귀족의 전성기였던 1728~1959년의 기간, 즉 230년간의 기간을 2단계의 시기별로 나누어 귀족이 점유했던 의석수와 흥망의 관계를 도표화 한 것이다(華達克 2008, 18).

<표2> 갈하(噶廈)와 귀족의 상관관계

귀족	점유한 의석수 (1728~1844)	점유한 의석수 (1844~1959)
朵喀(mDo-mkhar)	3	3
噶錫(dGav-bzhi)	4	1
帕拉(pha-lha)	3	2
沙扎(bShad-sgra)	3	2
索康(Zur-khang)	2	2
桑珠破 (bSam-grub-pho-brang)	2	2
吞(Thon)	3	0
薩迥(gSar-byung)	0	3
赤門(Khri-smon)	1	1
阿沛(Nga-phod)	0	2
擦絨(Tsha-rong)	0	2
宇妥(gYu-thog)	0	2
霍爾康賽(Hor-khang-gsar)	1	1
拉魯(Lha-klu)	0	2
布隆贊(vBrong-rtse)	1	0
拉定(Lha-sding)	1	0
기타 21家 귀족	0	각 1인

본 도표(<표 2> 참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두 시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실질권력을 장악한 귀족은 1단계(11개 귀족)보다 2단계(34개 귀족)의 시기에 더욱더 심화 확대되었다. 이는 첫 번째 시기에 권력의 중심부에 처음 들어온 귀족집안이 두 번째 시기에 들어와서도 세습 혹은 유지되었거나 확대되었음을 시사해준다. 두 번째, 두 시기에 거쳐 2석 혹은 2석이상의 의석수를 점유한 귀족은 당시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귀족 수는 14家뿐 이다. 당시 귀족의 전체 규모는 200여家에 달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14家만이 갈하내에서 중심 귀족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다수의 귀족 중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사회신분의 고하가 엄격히 존재했으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핵심 귀족세력은 일부 몇家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상술의 도표 속에서 출현하였던 귀족집단만이 최고위층의 귀족 계층에 속하며 정교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귀족가문이 흥성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영향력 있는 대형 황교사원에 집안의 아들을 출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티베트가 불교사회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한 것이다. 티베트는 불교사원의 영향력과 대중성 있는 활불의 존재로 유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원 중심의 사회였다. 이는 일반 티베트신자들이 불교사원과 사원에 존재하는 활불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봉하는 종교의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귀족가정은 가문의 구성원 중 남자 한명을 필수적으로 사원에 출가시킬 필요가 있었다. 출가한 자식이 사원에서 라마승 혹은 활불로까지 신분과 지위가 상승하면 가문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원세력을 보유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티베트에서 개인적인 종교적 구도와는 다른 귀족가문의 전략적 정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귀족 가문끼리의 혼인풍속은 가문의 부와 신분을 세습하고 확장하는 가장 자연스런 방법이었다. 근대이전까지 티베트 귀족세계에서는 화친(和親)적 성격이 농후한 혼인이 유행이었다. 귀족가문은 정치적, 경제적, 혹은 문화적 역량의 특성에 따라 다른 귀족가문과의 다양한 혼인 관계를 진행했다. 이는 외형상으로는 일상적인 가문끼리의 혼인을 보여주지만 내재적인 목표는 귀족간의 연합을 통한 신분과 힘의 과시를 의미한

다. 영향력 있는 가문끼리의 혼인은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외부적으로 사회적 신분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끼리의 혼인은 장원과 농노의 재정의 증가를 의미하며 자산의 확대로 이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문을 위해 혼인 당사자들의 개인적 감정과 의견은 배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티베트사회에서 ‘일처다부제’형식의 혼인은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한명의 부인이 다수의 남자를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의 순서에 따라 형이 먼저 동거를 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의 남편으로 인정받아 동거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하지만 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여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했다. 간혹 형제지간에 불협화음으로 이어져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경우도 있어 여자는 이 형제들을 잘 다루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까지 부여받았다. 일반적으로 농노나 유목인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으나 귀족의 가문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드물었다. 왜냐하면 형제지간의 마찰과 불협화음은 가문의 붕괴와 재산의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처(共妻)의 상황 중에 형이나 동생이 다른 배우자를 원한다면 가문은 우선 그를 설득하고 복종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다른 배우자를 고집한다면 가문의 회의를 통해 새로운 반려자를 찾아주고 재산을 떼 주어 ‘분가’(分家)시키기도 한다. 가문에서 분가할 때 허락해주는 재산은 가문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이다. 만약 토지가 부족할 때에는 가문의 이름으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귀족가문이 제일 꺼려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살펴본 파라가문은 이러한 재산유출과 인적융합의 분열을 방지하고자 일처다부와 형제공처(兄弟共妻)를 과감히 시도한 전형적인 귀족가정의 사례이다. 그러다 하더라도 귀족사회에서 공부(共夫) 혹은 공처(共妻)의 혼인 사례보다는 일부일처(一夫一妻)의 혼인형식이 선호되었고 제일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근대까지 티베트의 귀족가문들은 어떻게 가문의 연속성과 세습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고민하였으며, 그 해결방법으로써 귀족 가문끼리의 혼인을 서로 간에 추진하였는데 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 V. 결론

의식형태와 공통의 관념이 공고히 굳어진 사회에서, 즉 티베트의 불교 사회에서 출생과 혈통은 고정 불변의 법칙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사회등급 혹은 사회계층은 '세습'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즉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귀족의 가문에서 출생하면 일반 평민의 가정에 비해 많은 특권과 지위를 세습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신분의 보장과 경제적인 특혜였다. 조사에 따르면 1959년전 까지 티베트 귀족계층의 권력과 재산의 규모는 1750년대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티베트사회는 매우 봉쇄된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귀족과 승려라는 막강한 정치집단의 사회구조는 티베트사회를 통합시키고 하나의 '종교공동체'로 집약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외부세계와 단절된 인문 지리학적 환경 속에서 이 특수집단은 티베트 스타일의 통치시스템을 현명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티베트 사회를 이끌어왔던 동력은 크게 세 부류의 정치적 실체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불교사원이고 두 번째는 활불과 고위 승려집단 세 번째는 귀족(貴族)세력이다. 이중 귀족세력은 티베트 사회의 중심축 이었다. 그러나 티베트 정교의 상징적 존재인 활불(달라이 라마)은 정교의 통치권과 장악력에 있어서 사실상 한계가 작용했다. 오히려 옆에서 보좌하는 섭정활불의 영향력이 달라이 라마를 능가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사원의 출가승들은 섭정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대다수의 섭정이 법력과 수행기간이 오래된 수행승에서 선발되었고 종파 중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황교출신 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티베트사회에서의 귀족세력들은 섭정과 불교사원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티베트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방면에서 광범위한 인적시스템을 구축하며 진정한 파워 집단이었다. 귀족집단은 막대한 경제적 자산으로 해당 지역 불교사원을 장악했으며 개인 구성원들은 지방정부인 '갈하'에 진출하여 정치적으로 약진을 보여줬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외적 동력을 바탕으로 티베트 사회에서 귀족집단이 보여준 역할과 공능은 활불보다도 효과적 이

었으며 라마승보다도 광범위했다. 귀족집단은 가문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일원을 사원으로 출가시키거나 갈하에 진입시켜 대신으로 만들었다. 이는 자식을 불교사원에 아들을 출가시켜 영향력 있는 고위 라마를 배출시키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자 향후 잠재적 정치의 도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가 출가하여 라마가 되면 평생 불교에 정진하고 세속으로 환속하는 이는 매우 적었다. 이 밖에 또 다른 방법은 귀족은 같은 계층의 가문끼리 혼인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데 이는 티베트 정권의 교체기나 수장(달라이 라마)의 유고 시, 다가올 수 있는 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혼인정책 이었다. 티베트 사회는 계층구별이 확실한 신분의 등급이 존재했는데 귀족은 전체 티베트 인구의 5%도 안 되는 지배계층이 속하였다. 그들은 인구에 비해 점유한 농노와 토지 그리고 장원은 방대했고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문의 첫 번째 과제였다. 그 방법으로써 비슷한 가문끼리의 혼인의 결탁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산의 유출을 방지 할 수 좋은 방법이었다. 결론적으로 귀족계층간의 혼인은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도구이자 방법이었다. 이는 당시 티베트 사회에서 가문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이자 방법이였기 때문이었다.

| 참고문헌 |

- 심혁주(2010). 『티베트의 활불제도-신을 만드는 사람들』.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홍병혜(2004). “티베트 전통의 혼인유형 분석과 군혼문화의 형성배경.” 『중국학연구』. 제28집, pp. 215-241.
- Goldstein, M. C.(1971). “Serfdom and nobility: an examination of the institution of “human lease” in traditional Tibetan society.” 『亞洲研究雜誌』. 제30권, pp. 521-534.
- 陳慶英(2007). “西藏山南窮結家族.” 『民族學報』. 第20期, p. 85.
- 劉忠(1990). “論清代領主等級制度的形成.” 『中國藏學』. 第4期, pp. 71-73.
- 次仁央宗(1997). “試論西藏貴族家庭.” 『中國藏學』. 第1期, pp. 23-26.
- 張江華(1989). “試論西藏封建農奴制度的基本類型.” 『民族研究』. 第16期, p. 166.
- 劉忠(1983). “試析西藏農奴制莊園的殘存形態.” 『民族學研究』. 第5集, pp. 71-73.
- 次仁央宗(1998). “帕拉莊園朗生的今昔.” 『西藏研究』. 第7期, pp. 23-26.
- 牙含章(1988). “試論西藏封建農奴制度.” 『中國藏學』. 第一期, pp. 33-34.
- 次仁央宗(1999). “帕拉家族及其莊園.” 『中國藏學』. 第2期, pp. 54-55.
- 中根千枝(1996). 『西藏的貴族』. 西藏: 西藏人民出版社.
- 章嘉·若貝多杰(2006). 『七世達賴喇嘛傳』.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陳慶英(2006). 『歷輩達賴喇嘛生平形象歷史』.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馮智(2006). 『八世達賴喇嘛傳』.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普布覺活佛洛桑楚臣強巴嘉措(2006). 『十二世達賴傳』.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普布覺活佛洛桑楚臣強巴嘉措(2006). 『十三世達賴喇嘛傳』.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畢達克(2008). 『西藏的貴族和政府:1728-1959』. 沈衛榮·宋黎明 譯.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陳慶英(2002). 『藏族部落制度研究』.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次仁央宗(2006). 『西藏貴族世家: 1900-1951』.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舒介勛(1988). 『藏族史論文集』. 四川: 四川人民出版社.
- 皮德羅·卡拉斯科(1985). 『西藏的土地與政體』. 陳永國 譯. 西藏: 拉薩出版社.
- 劉忠(1991). 『西藏封建農奴制研究論文選』.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達瓦次仁(1991). 『西藏封建農奴制研究論文選』.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논문투고일: 2012년 07월 26일 |

| 논문심사일: 2012년 07월 26일 |

| 게재확정일: 2012년 08월 04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19, No. 2 (2012)

## Marriage Culture of Tibetan Noble Families

Hyuk-Joo Sim

(Research Professor

Humanities Science Institute, Myongji University)

Following three aspects will help understand the power and the truth of how Tibetan society maintains its unity of religion and politics until modern times. First, it is Dalai Lama, the head of the unity of religion and politics, and high-ranking monks who are close to Dalai Lama. Second, it is Buddhist temples that hold strong influence to design and construct Tibetan politics and religious culture. Third, it is a power block of Tibetan noble families. However, the previous Tibetan society before 1951 formed the ruling class comprised of three types of lords,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of a feudal local government, the nobles, and the high-ranking lamas of Buddhist temples, and their population only accounted for 5% of the total population. Among them, the aristocracy was the actual power group that created Tibetan culture and politics and took the lead in economy. Historically, the Tibetan aristocracy formed four types of classes as follows. The first class is *Yabshi* family. They are called "Golden aristocrats" consisted of parents of Dalai Lama and a family of Panchen Lama. The second class is *Depon* family. This family, the most influential group in Tibetan noble society, is traditional and authoritative and passes one power to blood-related descendants. The third class is *midak* family. This family used to dominate ministers of then Tibetan local government and actively pushed forward marriage

among similar families to maintain families' stability and status. At the time, this marriage culture affected other noble classes except for *Yabshi* family and led up to the universal sentiment that recognizes politicization of marriage. Lastly, although they are ordinary nobles, they are small self-made families that accumulated economic wealth by their own efforts and entered into the world of nobles.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noble families' marriage forms, values, and marriage purposes. The analysis intends to reveal that the marriage of then noble families was extremely political by highlighting the difference from the marriage culture of common peasants and serfs in Tibet and additionally estimate the social background at the time to see reasons of the politicization of the marriage.

Key words: Tibet, Noble, Marriage, Unity of Religion and Politics, Golden Aristocrats.